

농어가 최고 1천만원대출 년리6.5%

정부와 여당은 올해부터 농어민의 상호금융 대책자금을 가구당 1천만원하도 내에서 현행금리 연12.5%의 절반수준인 연 6.5%로 1년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해 15일 이런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농수축협외 대출금을 못갚고 있는 1백15만 가구가 7조6천억원의 지원받게되며 농어가의 이자 부담도 연 4천1백80억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당정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상환만기일이 연기된 정책자금 4천2백80억원과 올해 상환해야하는 4천2백억원등 모두 8천4백80억원에 대해 2001년까지 상환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빛이 많은 기업농 등 대규모 농어업 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위해선 2조원 규모의 농어업 경영개선자금을 조성 연 6.5%의 저리자금을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중국산 가금육 수입 임박 오리업계 대책수립돼야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여 업계는 이태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2월 중국산 가금육수입위

생조건을 검토키위한 관련기관 및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회 결과 드러났다.

이날 회의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8월에 마련된 중국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이 타국에 비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측의 의견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마련키 위해 이뤄졌다.

이날 쟁점사항은 가금인플루엔자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졌으며 당초안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사육농가의 보호차원에 장독 및 약독에 상관없이 검출되면 수출을 중지토록하고 있으나 이안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위생규약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당조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들은 국내 가금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약독에 대해서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지조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정부만이 중국산 가금육 수입을 잠점중단조치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국내 사육농가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수입을 잠점 중단시킨 상태에서 2년을 끌어온 것은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가축위생과 담당자는 이와관련해서 이제는 중국산 가금육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사육업계가 대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는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육업계는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오리 사료생산량 최고치
또 경신**

지난해 오리배합사료 생산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종오리사료 생산량역시 지난해 10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또다시 경신돼 오리사육량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회가 잠정집계한 지난해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총 17만3천3백19톤이 생산되어 오리업계 사상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품목별 생산실적을 보면 어린오리 사료가 2만4천1백71톤, 육용오리사료가 12만3천1백16톤, 육성오리사료가 4천7백70톤, 산란사료가 2만1천2백26톤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생산량은 전년도 생산량에 비해 60% 증가된 량이고 사상최고를 기록한 지난 97년도 생산량에 비해서는 18% 늘어난 량이다.

품목별로 증가율은 어린오리사료가 68%, 육용오리 70%, 육성오리 21%, 산란오리 69%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오리배합사료 생산량은 1만8천2백58톤이 생산되어 월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품목별 생산량에 있어서 산란사료 생산량이 역시 2천3백41톤이 생산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산란사료 생산량은 전월에 비해 15% 전년같은기간에 비해서는 69%가 증가한 량이다.

또 어린오리 사료생산량은 2천1백86톤이 생산돼 전월에 비해 7.4% 증가하였고 육용오리사료 역시 1만3천1백51톤이 생산돼 전월에 비해 15% 전년같은기간에 비해 70%가 증가됐다.

이와같이 12월의 오리배합사료 생산량이 낮은 시세에서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오리사육량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오리 도입
및 사양관리 세미나 추진**

종오리 개량에 의한 부화장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육농가에 품질좋은 새끼오리 공급을 위한 종자용 PS 도입과 사양관리기술 보급을 위한 세미나가 추진된다.

본회는 지난해 부화업계 종사자들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종오리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위해 영국 및 프랑스 종오리 육종관련회사에 종자용 종오리 수입과 관련한 수출가격 등을 협조요청한바 있다.

이와관련하여 지난해 10월 프랑스의 그리드드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하

는 한편 지난 11월에는 그리므드사 관계자 내한시 종오리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마쳤다.

협의를 주요내용은 종오리 수당 도입 가격을 최대한 낮춰 줄 것과 종오리 사육관련 프로그램의 제공 및 농가지도와 세미나 개최 등이었으며 협의한 내용이 받아들여 졌다.

이에따라 본회는 협회차원에서 종오리 도입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종오리 도입시 회원농가의 공급가격을 수당 검역등 제반경비를 포함하여 9천 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1차의 종오리 도입은 1월중 도입희망 물량에 대한 신청을 받아 2월말이나 3월초에 공급할 계획이며 사양관리기술에 대한 세미나는 그리므드관계자들을 초청하여 4월중순경 실시할 계획이다.

종오리 도입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1월까지 본회에 신청하면 된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리고기 효능 소개 KBS 1 TV

오리고기의 특성과 효능 등 오리고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다루어져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13일 KBS 1TV 오전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오리고기의 부위별 효능에 대한 궁금증을 한의학계

및 영양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세하게 다뤘다.

이창호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프로에서 한의학전문가로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민영박사와 식품영양학 전문가로는 장명숙단국대 식품영양학 교수가 초청되어 오리고기 효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었으며 오리고기 요리는 배운자요리연구가가 초청되어 다양오리고기 요리법도 소개했다.

이박사는 오리고기의 성질은 서늘하여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맞는 식품이라고 전제하고 한의학측면의 부위별 효능에 대해서 오리발은 이뇨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오리알은 부종, 기침,인후통에 효염이 있으며 오리고기는 혈압이 높은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장박사는 오리알에는 콜레스테롤을 낮게해주는 레시친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지방을 유화시켜 체내 침착을 없애주며 오리고기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오메가3지방산이 높아 심장,동맥경화에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밝혔다.

약이되는 오리요리에는 충조전압탕, 로스구이 북경오리구이,간풍기,피망복음과 빈혈에는 오리와 전복, 기침에는 오리와 돼지족발 동충하초, 피로에는 오리와 황기,구기자 등을 넣은 요리가 추천됐다. 이밖에 일반가정에서 요리할 수 있는 요리로 탕,찜,오리냉채,피단요리가 소개됐다.